

종교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한마음

긴급구호 활동·모금 캠페인 등 진행

종교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나섰다. 긴급구호 활동과 모금 운동, 기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NCCK 관계자는 "하루 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지난 4일 기도회 때부터 모금 활동을 알리기 시작했다"며 "모금액은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전달되고, 어린이·여성 등 피난민 구호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로 실사단을 지난 8일 파견했다. 실사단은 오는 13일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파악과 난민 1차 긴급구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교회봉사단은 오는 5월 7일까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톨릭계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미음한문운동본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한미음한문운동본부는 "우크라이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자금 미화 10만달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특별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금된 기금은 우크라이나 카리타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가톨릭교회로 전해져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에 지원될 예정이다. 현지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피난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했다. 영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 선교후원회(지도사제 영수정

추기경, 이사장 허영업 신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

불교계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3일을 우크라이나의 생명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날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전국 사찰에 전달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입장문을 내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결국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국내 30개 불교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되어 전쟁종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전쟁의 깊은 상흔과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전경.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2개 기관

남원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2021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2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2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주관, 전국 480여 개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에서는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 인사 및 조직 관리, 시설 안전, 대외협력 및 홍보 등 7개 분야를 평가하며,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은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진로체험, 대안교육, 단합놀이, 상시배움 등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캠핑 체험을 하는 유스캠, 스킨캠, 홈캠핑과 광한투어를 중심으로 남원의 역사문화를 해설하는 청소년문화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접숙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 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센터 대강당에서 이를 기념하는 교육 개강식 및 양성평등 특강을 진행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교육 개강식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양성평등 특강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센터 대강당에서 이를 기념하는 교육 개강식 및 양성평등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농협본부(본부장 정재호)로부터 빵과 감미를 지원받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의미를 담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해농가 꽃 나눔에 동참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어 김수진 감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청해 '함께 열어나가는 성평등한 시대 공감'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특강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차이와 변화를 받아들이기,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성인지 감수성 내재화하기,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의 모두가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정정희 센터장은 "교육자의 견해는 교육 환경 및 내용, 상호 작용 과정에서 교육생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양성평등 의식의 내재화는 위촉강사, 수강생 대표로서의 필수 역량이다"며, "이번 행사는 그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확산의 파급력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센터는 변화의 흐름과 방향에 앞장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체감하는 평등한 사회 구현과 지속가능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군산시, 신인·지역 예술가 지원 접수

군산시는 지역예술가들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와 신인예술인 육성을 위해 창작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창작지원사업은 신인 예술가(단체)를 지원해 예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지역 예술가(단체)들에게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 규모는 총 7,000만원으로 신인예술가 4,200만원, 지역예술가 2,8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공고일 현재(7일) 1년이상 계속해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지원분야는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예, 연극, 사진, 영화, 드라마, 문인 등의 문화예술활동과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단, 동일 작품에 대한 공연 사실이 있거나 단체의 경상적 경비, 시설매입, 건립·재건축, 기금적립, 자산형성적 경비, 용자지원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신인예술가들의 진취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해 신인예술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지역예술가들의 지속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지역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군산시 예술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2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스위트 원더랜드 체험전'에 선정됐다

이번 전시는 작품비 4,300만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 받아 운영되며 전시내용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이라는 공간이 익숙해진 어린이들에게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기 위해 일상 속 친숙한 재료로 제작된 일러스트 체험전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 작가 중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작가들이 본인만의 색채와 스토리로 색선을 꾸밀 예정으로 4인 4색의 다양함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한 좀 더 쉽고 재밌게 작품을 관람 할 수 있도록 도슨트(전문안내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일, 주말 총 하루 4회씩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덕일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트 원더랜드 체험전'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2.3 전실에서 무료관람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